

# 4·3 보듬겠다던 대통령, 추념식 불참... 민주 “진정성 의심”

### 김기현 대표 등 국회 주요 지도부도 참석 안하고 최고위 회에서 추모 박홍근 “윤석열 정권의 민낯”...박범계 “지지율에 도움 안되니 불참”

국민의힘은 제주 4·3사건 75주년을 맞아 3일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의 시작에 앞서 묵념으로 4·3 희생자들을 기렸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가슴에는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 동백꽃은 4·3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가져 4·3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같은 시각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는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제주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 영전에 깊이 애도하고 명복을 빌다”며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지도부가 제주도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역사적 아픔이 있는 날과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정쟁을 삼가고 함께 아

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75주년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식을 찾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선인 시절 4·3 희생자·유가족 명예 회복을 약속한 것은 진정성이 없는 행태였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 오늘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주요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총선을 두고 표를 의식해 (추념식에) 얼굴을 비칠 것”이라며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4·3 75주년 추념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저 정권을 꼭 기억했다가 심판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념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 들렀던 것도 결코 넘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구 방문은) ‘나는 여전히 보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라며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 4·3 추념식은 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석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제 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

###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전원위 운영 방안 논의

여야를 망라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은 3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구성된 국회 전원위원회의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대 정당이 극한 대립의 바보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정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위정정당이 등장한 21대 총선을 겪고 나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80~85%에 달한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를 고쳐보자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안다”며 “꼭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어떤 방향의 정치개혁이 이뤄야 하는지 공감대와 함께 이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숙의가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300명 의원 전원이 모든 제도의 기능과 의미, 성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지막에 헌법기관

의 하나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철 의원도 “(전원위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자 방법”이라며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좌절과 함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모임은 김 의장에게 내주 10일부터 열린 전원위 논의 순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앞서 전원위는 1일 차(10일) 비례대표제, 2일 차(11일) 지역구제, 3일 차(12일) 기타 정점, 4일 차(13일) 종합토론을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바 있다.

의원모임은 이를 변경해 10~13일 나흘간 총론, 각론, 전문가 질의응답, 종합토론 순으로 각각 하루씩 토론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원위 결의안 초안 작성을 담당할 전원위 간사단 구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3野 “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는 탄핵 사유”

### 농해수위 개최...국회의장, 수정안 내기 전 분석결과로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질타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분회를 통과했지만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야당 주도로 개최한 이날 상임위 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윤미향 의원 참석만으로 열렸다.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

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윤재갑 의원은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도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 비판

국민의힘은 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 어이가 없다”며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한일 정상 회담 이후 첫 경제교류

행사로 지난달 30일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렸으며 “국익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실 정치로,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는 무례하고 무리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